강진 '병영소주' 우리술 품평회 증류주 부문 최우수상

강진군 병영양조장(대표 김견식) 의 '병영소주'가 최근 농림축산식품 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 평회 증류주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.

강진군 병영면은 조선시대 지역 병권을 총괄했던 전라병영이 위치 한 중요한 군사기지로 당시 병마절 도사가 즐겨 마신 술을 대한민국 식 품명인 제61호 김견식 명인이 '병영 소주'로 빚고 있다.

병영소주는 쌀이 귀하던 시절 보 리쌀로 빚어 마셨던 술이다. 병영양 조장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찰보리 쌀과 누룩으로 밑술을 만들어 3주 이상 숙성시킨 뒤 여과와 증류를 통 해 빚어진 알콜 도수 40도의 보리 증류식 소주다.

전통방식 그대로 빚는 까닭에 대 량 생산을 하지 못해 전화를 통한 택배 주문으로 판매하고 있다.

고도주임에도 불구하고 목 넘김 이 부드럽고 향이 온화하며 끝맛이

깔끔한 술로 평가받고 있으며, 올해 남도 전통주 품평회 증류주부문 최 우수상, '19년 벨기에 국제주류품평 회 증류식 소주 부문 2-STAR 수상, '18년 국가지정 술 품질 인증을 획 득하는 등 전통주의 고급화와 세계 화에 이바지하고 있다.

또 병영소주에 사용되는 보리는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100% 국내산 만 사용해 지역 농가에도 도움을 주 고 있다. 원재료에 들어가는 생산비 용도 만만치 않지만, 좋은 술을 빚 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재료만을 써야 한다는 소신을 지키고 있다.

병영소주는 200ml 1병에 2만2천 원, 500ml 1병에 4만9천500원으로 병영양조장 직매장 및 술담화, 술마 켓, 술팜닷컴, 우리술상회, 우리술한 잔 등 인터넷 몰과 초록믿음 쇼핑몰 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 항은 강진군 초록믿음 직거래지원 센터(061-433-8844)로 문의하면 된다. /박종옥 기자



강진군 병영양조장(대표 김견식)의 '병영소주'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증류주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.

/강진군 제공

무안, '고향사랑 기부제' 준비 착착 읍·면 방문 홍보, 답례품목 15종 선정

무안군(군수 김산)은 2023년 1월 시행되는 내 고향 살리는 '고향사랑 기부제'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종 합정보 시스템 구축 협약, 읍면 방 문 홍보, 답례품 선정 등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.

최근 고향사랑기부제TF팀은 현 경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이장단에 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설명하 고 군민과 출향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독려했다.

군은 지속적으로 이장회의, 노인 의 날 행사, 동창회 등을 활용해 제 도를 알리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관 심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.

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 사랑기부제는 기부액 10만원까지 는 전액, 초과분은 16.5% 세액공제 해택과 함께 30%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.

답례품은 고구마, 한돈, 농산물꾸 러미, 양파, 양파음료, 양배추즙, 쌀, 양파김치, 양파즙, 김, 잡곡류, 무안 사랑상품권, 한우, 참(들)기름, 마늘 이 선정됐으며 기부자들은 23년 1 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에서 기부 후 답례품을 고를 수 있 게 된다.

김산 군수는 "고향사랑기부제가 출향민의 애향심 고취와 더불어 지 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 을 기대한다"며 "고향사랑 기부제 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한편 무안군은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, 기금 설치 등 순차적으로 업 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고향 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제TF팀 (061-450-5788)에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. /고민재 기자

신안군, 흑산 비리 마을 어업인 쉼터 준공

신안군(군수 박우량)은 최근 흑산 면 비리 어업인 편익시설에 대해 준 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당초 사업비는 1억 2천 500만 원 (도비 80%, 군비 20%)이었으나, 전 라남도가 제시한 표준모델인 철골 구조물에서 흑산도를 자주 지나가 는 태풍, 강풍과 비·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군비 9천 5백만 원을 추 가 부담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

계 변경, 총 2억 2천만 원으로 튼튼 하고 안전하게 완성했다.

비리 마을 어업인 쉼터(편익시설) 는 건축면적 56.16㎡(17평)으로 마 을공동작업장과 휴게실, 남·여 화장 실 1개를 포함해 주민들이 작업 이 후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게 폭 8m 가 넘는 넓은 창과 벽체는 흰색, 지 붕은 코발트 블루색으로 마감해 지 중해 휴양지에서 휴식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을 준다.

박우량 군수는 "비리 마을은 작은 마을이지만 마을공동작업장에 어 업인이 쉴 수 있는 쉼터까지 지어놓 으니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어 기쁘 고. 천혜의 비경 감상과 휴식을 통 해 섬에서 살아도 행복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잘사는 신안을 만드는 것 이 신안의 목표"라고 강조했다.

한편, 신안군에는 현재 27개의 어 업인 쉼터가 조성돼 있으며, 4개가 건립중에 있다. /장홍근기자

함평군, 다섯째 아이 출산한 다둥이 가정

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한 부부 가 최근 다섯째 아이를 출산해 눈길 을 끌고 있다.

함평군은 "함평읍에 거주하는 A 종 출산장려 혜택도 부여된다. 씨 부부가 지난달 건강한 여이를 출 산해 지난 17일 A씨 가정을 방문해 격려하고, 카시트 등 출산 축하선물 을 전달했다"고 21일 밝혔다.

다섯째 출산으로 A씨 부부에게는 지원을 비롯해 지역사회에서도 많 있다.

출산장려금 1천만원이 분할 지급되 며, 첫만남 이용권(200만원)과 다둥 이 육아용품 구입비(50만원) 등 각

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다섯

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감 사드린다"고 말했다.

한편, 함평군은 내년 양육지원금 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△임신축 하선물 △출산축하선물 '행복함' △ 첫만남 이용권(200만원) △나비고 A씨 부부는 "출산과 육아로 힘든 을 출생아 양육지원금(300만원~1 로 필요하다"며 "모든 아동이 하나 부분도 많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모 천만원) △육아용품 무료대여 △ 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등 다양한 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째 출산을 결심하게 됐다"며 "군의 산·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

영암군, 재난대응 훈련 실시

5

영암군은 최근 영암국민체육센터 에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 련의 일환으로 군직원들과 유관기 관·단체와 함께 실제훈련을 실시했 다고 밝혔다.

우승희 군수 주재로 지진으로 인 한 건물 붕괴 및 대형화재를 가정 한실제훈련으로 진행한 이날 훈련 은 영암군, 영암경찰서, 영암교육지 원청, 영암소방서, 영암왕인대대, 한 국전력공사 영암지사, 월출산국립 공원관리사무소, 영암의용소방대, 영암자율방재단 등 10개 기관·단 체에서 15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초 동대처, 비상대응, 수습복구 순으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.

최근 여러 재난 발생으로 재난·위 기상황에 대한 공공기관의 위기관 리 능력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군 차원의 매뉴얼 점검과 골든타임 내 임무 수행에 역 점을 두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해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다는 평이다.

군 관계자는 "이번 훈련에서 발견 된 문제점을 개선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겠다"라고 말 했다. /이유빈 기자

목포,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

목포시가 '아동학대 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을 맞아 최근 평화광장 일 대와 초등학교에서 '아동학대 예방'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.

이날 캠페인은 민법상 징계권 폐 지와 긍정양육 129원칙 등을 안내 하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아동 학대 인식개선, 아동학대의 심각성 과 신고 중요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목포경찰서,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 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됐다.

시 관계자는 "아동학대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, 아동 학대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양육방 법 등에 대한 인식개선이 지속적으 /이문수기자 겠다"고 밝혔다. /박성태 기자

